

사회복지사들의 윤리적 갈등 해결창구 개설

“사회복지사, 이제 걱정 마세요”



| 답변 : 정종우 사회복지윤리위원회 위원장

사회복지사들은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을 접하면서 종종 윤리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출구는 없으며, 동료나 선임사회복지사에게 하소연하는 정도이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윤리위원회는 이러한 사회복지사들의 갈등을 함께 고민하고 나누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윤리상담창구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윤리상담창구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사 윤리상담창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윤리상담창구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기능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지요.

사회복지윤리위원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상임위원회로서 ‘협회 정관 제41조(상임위원회)와 위원회 운영규정 9조(상임위원회 구성)’ 및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업 및 윤리 확립 등을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 아래 구성된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기능

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개정에 관한 사항, 둘째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관련 정계에 관한 사항, 셋째는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윤리적 갈등 상담, 넷째는 사회복지 실천을 강화하기 위한 윤리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사회복지 윤리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기능 중 하나인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윤리적 갈등 상담’에 응하기 위하여 상담창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복지사 상담창구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기초하여 윤리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사이버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윤리상담창구의 개설 준비는 어떤가요?

사회복지윤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윤리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협회에 사회복지사 상담창구의 개설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부터 협회의 신규 사업으로 상담창구 개설 사업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8차에 걸친 윤리상담창구 개설 준비회의를 개최하여 운영방향 등에 대한 구상을 정리하였으며, 현재는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 윤리상담창구는 온라인 비공개를 원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비밀보장은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개인이 로그인을 하여 온라인상에서 실명제로 상담을 신청하고 상담을 신청한 본인이 상담한 내용에 대해 조언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 윤리상담창구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사 윤리상담창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윤리상담창구는 '온라인 상담원칙'을 기본으로 상담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 및 세부적으로 파악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명의 온라인 회원'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윤리상담창구에 대한 상담 영역 및 조언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먼저, 사회복지사 윤리상담창구에서 상담할 수 있는 영역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있는 '클라이언트, 동료, 기관,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윤리적 갈등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담에 대한 조언의 범위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겪고 있는 윤리적 갈등 문제에 대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토대로 조언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하여 고발 및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하여 조사여부를 결정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에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윤리상담창구의 상담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사회복지사 윤리상담창구의 상담위원은 사회복지사 윤리위원회 위원들입니다. 사회복지사 윤리위원회 위원들은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들과 '사회복지 윤리' 분야를 대학원에서 전공한 사회복지사들입니다. 또한 이들 상담위원들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위촉을 받아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입니다.



상담내용의 비밀보장은 확실히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 윤리상담창구는 온라인 비공개를 원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비밀보장은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비밀보장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윤리상담창구는 개인이 로그인을 하여 온라인상에서 실명제로 상담을 신청하고, 상담을 신청한 본인이 상담한 내용에 대해 조언을 직접 볼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사 윤리상담창구의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사 윤리상담창구는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 과정을 통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준비단계에서는 5월까지 윤리상담창구의 콘텐츠에 대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담을 실시하는 위원들이 함께 모여 워크숍을 2차례 가질 예정이며, 현재 커뮤니티를 통해서 외국의 사례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윤리상담창구가 개설될 경우에 사회복지사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인마을(welfare.net),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kasw.or.kr), 직능단체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행단계에서는 사회복지사 윤리상담창구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kasw.or.kr)에 개설하여 각 위원들이 비공개 상담을 실시하며, 월 1회 사회복지사 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상담창구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또한 회의에서는 상담 사례를 조사·재구성하여 사례집을 제작하기 위한 자료를 축적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평가단계에서는 12월 말에 사회복지사 윤리상담창구의 운영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평가를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사회복지사 윤리상담창구로 발전시켜 갈 예정입니다. ☞